

만남

부활절특집

04

2022

통권 578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바르게 믿어요’ 아동부 봄맞이 성경학교

지난 2월 26~27일 아동부 봄맞이 성경학교가 열렸다. 온라인과 현장예배를 병행한 성경학교는 베다니홀과 각 부서 교육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샌드 아트(Sand Art) 박선경 작가의 <노아의 방주> 작품을 감상했다.

온·오프를 병행한 진행은 교회에서 마련한 올라인(all-line)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먹방으로 음식을 먹으며 댓글로 대화하고 ‘바르게 믿어요’ 주제에 따라 바른 믿음의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 퀴즈를 풀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로 작품을 완성해 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사진은 청년부·아동부 찬양팀이 힘찬 울동과 찬양하는 모습.

취재 정다운기자 사진 원종석기자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야 합니다! 김운성

부활절 특집 04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계획 최재선

07 부활절에 김현승

08 죽음에 대한 묵상 김천곤

특별기고 10 <그의 백성 운동>을 아시나요? 이수영

기획연재 16 성령의 역사로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다 손옥순

다음세대 22 말씀행진·기도행진으로 준비 김보은

24 위풍당당 사랑부 김현주

26 부르심에 순종하여 커진 은혜와 기쁨 김예찬

28 웹툰 <깨닫는 은혜> 이화선

땅끝까지 이르러 32 성금요일과 부활절 공연을 준비하며 승민성

영락의 울타리 34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재량

36 활기찬 신앙을 위한 명랑(明朗)상담 강승훈

39 2023년 창단 50주년을 준비하는 갈보리찬양대 이창선·이인태

44 수술시간과 출혈·감염 위험 줄이는 로봇수술 정광윤

46 한경직 목사 22주기 기념주간

야곱의 우물가 47 시온찬양대와 함께 걸어 온 41년 송길례

50 뒤늦게 깨달은 은혜에 감사 김낙일

문화광장 52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김진우

53 존재의 신비 9 윤미숙

교회소식 53 갈릴리찬양대 창립40주년 감사 음악예배 외

56 4월 목회력 /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부활절 시기에 피기 시작하는 백합은 순백색의 꽃으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순결성을 상징한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야 합니다!

김운성 위임목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태복음 5:13)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는 무속 문제였습니다. 후보와 배우자 주변에 특정 무속인이 있다거나, 점을 쳤다거나, 오살의식을 행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후보를 지지하는 굿판이 벌어졌고, 굿판을 주도한 인물이 선거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가 사퇴하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목할 일은 무속 문제로 서로를 공격하다 보니, 후보와 후보 진영의 인사들은 무속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거나, 과거에 교회에 다녔다고 하거나, 혹은 집안의 친척 중

에 목회자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후보 자신은 교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교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예배에 참석해도 되느냐는 문의도 있었는데, 영락교회 예배 참석이 무속의 그림자를 덮는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서 무속의 올가미를 벗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를 건강한 종교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교세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인이 11만 4천여 명 감소했고, 타 교단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의 교인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염려가 깊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2021년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이가 17%로,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1위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각 후보 진영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욕구, 혹은 관심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1위 종교인 기독교를 통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무속적 방법으로 당선을 기원하거나, 당선 여부를 알고자 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교회에서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점쟁이가 하듯이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당선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후보 진영에서 무속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유가 전부일까요? 저는 더 두려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후보 진영에서 볼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속을 의지하여 점을 치고 굿판을 벌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과 얽히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 줄 알면서도 무속에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됩니다. 이는 교회가 1위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썩음을 잃은 소금처럼 영적 능력과 영향력이 약화하였다는 반증인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방법은 교회가 다시 맛을 회복하는 것, 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본질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상황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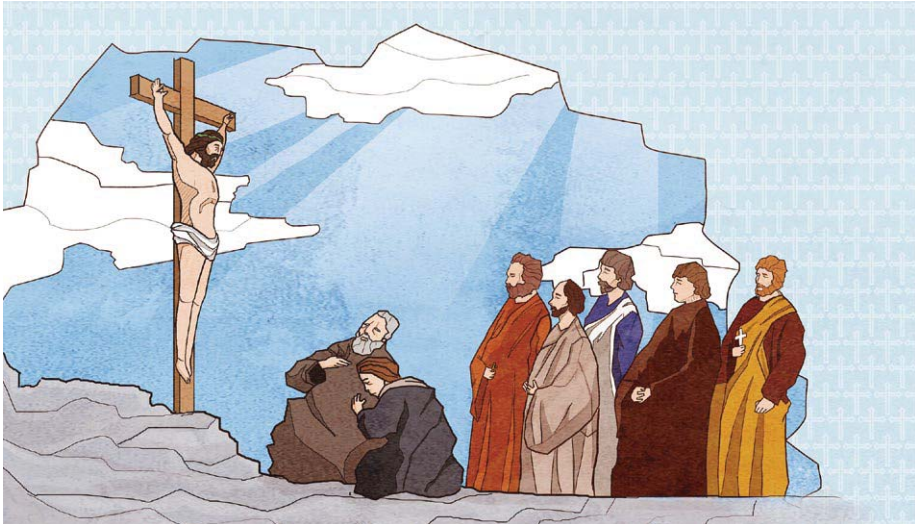
교회가 썩음을 회복하고 말씀 위에 설 때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난받더라도 거부해야 할 때가 있고, 수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당장은 오해받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무속을 포함해서 세상에 다양한 종교 형태가 존재하지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없습니다. 신이신 분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사랑은 오직 기독교 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 복음의 핵심입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참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를 겨루어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은 이들이나, 잃은 이들이나,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고 복지국가를 이룬다 해도, 평화로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참 생명과 평안은 오직 주님의 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무속이나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워 가야 하는 과제는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남**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계획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의해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인 가롯 유다의 배반(마태복음 26:14)이 있었고, 당시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혈안(마태복음 26:3~4)이 되어 있었다.



최재선 목사
청년부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총독 빌라도(마태복음 27:1~2)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 유대인에 의해, 이방인에 의해 능욕 받고, 버림받고,

침 뱀음과 채찍을 맞았다(마가복음 10:33~34).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시 유대인들의 적개심과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였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23)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며 최대의 축제이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 대한 참된 승리입니다

고 있었다(마태복음 16:21, 17:23, 20:19). 시시각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며,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결단하였다(마가복음 10:45, 누가복음 22:42, 요한복음 17: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담긴 더 깊은 차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5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며 처벌이다.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과 쓰라린 십자가 죽음으로 이끄셔야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만 할 하나님의 진노 잔을 대신 취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여기에 대해 『도르트 신조』 Ⅱ장 제3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은 죄를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과 만족이다. 능력과 가치는 끝이 없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풍성하게 넘칠 정도로 충분했다.”

2.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적 실재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난을 의미한다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왕의 통치권을 내포하고 있다.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 복음서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두 공통으로 기술하고 있다(마태복음 28:1~10, 마가복음 16:1~8, 누가복음 24:1~12, 요한복음 20:1~10).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회심한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 맞춰져 있다(사도행전 2:24, 4:10, 10:40~41, 17:31). 이외에도 로마서 10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증하고 있다.

빛나는 천사들의 예수 부활 소식 선포(마태복음 28:1~10)와 예수님의 빈 무덤(누가복음 24:2~3)에 대한 증언은 부활이며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재성을 확인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①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최대의 축제라고 말한다.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칼뱅은 『기독교강요』 제2권 16장에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하며 다만 무력해질 뿐’이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굴복해 버리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죽음에서 해방하실 수 있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싸움에서 패배하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최종 승리를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 대한 참된 승리가 되셨다(로마서 4:25).

오늘날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실재를 지속해서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빛과 능력이 단 하루라도 비치지 않는 날은 없다(베드로전서 1:3, 요한계시록 1:1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②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린도전서 15:20)가 되어 주셨으며, 장차 믿는 우리 또한 이

와 같은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참된 생명의 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부여자시기 때문이다(요한계시록 1:17~18). 오직 이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다(요한복음 11:25~26, 골로새서 3:4, 빌립보서 1:2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며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때부터 사망과 죽음의 세력은 더 이상 힘을 잃고 패배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현재 삶에 완성된 구원의 확신(로마서 8:11)을 부여하고,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든다(베드로후서 3:13).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소유한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부활에 참여토록 만드는 거룩한 사명으로 초청받았다(마태복음 28:18~20, 요한복음 20:22, 사도행전 1:8).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한다. **만남**

부활절에

김현승 시인(1913~1975)

당신의 핏자욱에선
꽃이 피어 - 사랑 꽃이 피어,
땅 끝에서 땅 끝에서
당신의 못자욱은 우리를 더욱
당신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태인의 옛 수의를 벗고
모든 4월의 관(棺)에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 납니다.

해마다 삼월과 사월 사이의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筭)으로...

죽음에 대한 묵상

최근에 장모님이 중환자실에 여러 번 들어가시며 죽음에 대한 묵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정해진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의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죽음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잊고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 6:27)’라고 말씀하셨건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도 첫 번째 죽음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육체적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남은 삶에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과 인생에 죽음은 들어 있지 않았습다. 즉,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지요. 죽음은 우리에게 이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 때문

에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과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의 집요함과 그 심각성에 관해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고 차지도 덤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한다면 죽음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 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죽음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즉, 이생에서의 단순한 끝이 아닌 또 다른 영원으로 승격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 마치고 본향으로 가는 시작점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생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은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잠자다가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 의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유언도 남기고 사랑했다고 전하기도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의식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모습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지요. 그러기에 단순히 자식들과 이웃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며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소망이 없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소망을 머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사탄은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정말 죽음이 우리를 끝장내는 슬프고 두려운 사건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김천곤 집사
강남교구
대학부 지도위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죽음은 전혀 다른 모습이 돼...
또 다른 영원으로 승격...본향가는 시작점입니다

에게 평안을 주시고 악을 면하게 하도록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은 아닐는지. 또 어쩌면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보면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로 살아온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생에는 무엇을 남겨놓을 것이며 하늘나라에는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재물과 사랑의 흔적 및 선한 영향력 등은 세상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천한 흔적들을 가지고 가겠지요. 그러니 본향으로 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맡긴 일의 결과물을 한 아름 가지고 떠나는 즐겁고 기대되는 고향길입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육체적 이별이 슬프겠지만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면 조금 가벼운 발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본향)로 갈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할 것인가? “굿바이(Good Bye)!”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굿나잇(Good Night)!”라고 할 것인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라면 Good Night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Good Bye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Good Night 인사하고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

하지 않은 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는 원래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가능한 사랑으로 영원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구할 것이 성령 충만 임을 잊지 말고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 이후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죄 문제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후 문제로 전전긍긍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까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탄이 겁박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생의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영락 성도 모두 본향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만남**

〈그의 백성 운동〉을 아시나요?



코로나19는 우리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호기로 삼아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교회 탄압을 노골화했는지 조금만 돌이켜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대부분이 그 노골적인 탄압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너무나 순종적이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발 앞서 자발적으로 협조하

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일제에 의해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시절의 한국 교회가 자주 연상되어 참으로 서글프고 자괴감마저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

의 침묵이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을!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내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으며 자정능력도 사라져감으로써 우리 사회 속에서 힘을 잃고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얻어맞고 견어차여도 항변할 줄 모르고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못하는 나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들어주려고 하는 이 없는 미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슬픈 현실에서 벗어날 치유와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백성 운동〉은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로부터 등 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니



이수영 은퇴목사
새문안교회

성장주의·물질만능주의로 사회적 신뢰와 존경 잃어 겸손·정직·검소가 영향력 회복의 길

다. 외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때를 같이하여 한국 교회는 세계교회가 경이로움을 가지고 주목한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신자 수가 늘어나고 물질적인 힘도 커지면서 한국 교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교회를 교만에 빠지게 했고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성공제일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편법과 불법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기독교가 정직하지 않은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발언, ‘예수쟁이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목소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걷히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자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만연하게 되었고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적 부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었고, 경제적 여유 정도가 믿음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족과 절제와 나눔의 정신은 약화하고 영적인 삶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설령 일부 교회나 소수 교인의 경우일 뿐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기독교 전

체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비난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이 멈추었을 뿐 아니라 교세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사회적 영향력도 추락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대 사회적 영향력을 되찾을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찾은 것이 겸손과 정직과 검소입니다.

겸손은 한국 교회가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것이고, 정직은 성공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검소는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함으로써 사라져 버렸던 교회의 고결함을 다시 찾아 교회에 대한 사회의 존경을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떠들썩하지 않게 겸손하고 정직하며 검소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그러한 노력을 묵묵히 십 년, 이십 년 계속한다면 언젠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하고 확실한 한국 교회 개혁의 방향이며 기독교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회를 향하여 빛을 밝게 비추며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백성 운동〉에서 “그의 백성”이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의”에 해당하는 영어 HIS의 세 글자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곧 H는 Humility를, I는 Integrity를, S는 Simplicity를 가리키는데 이 세 단

어를 각각 우리말로 겸손, 정직, 검소를 의미하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백성”이란 겸손하고 정직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백성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 사회의 뼈아픈 요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백성의 덕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겸손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덕목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을 권면할 때 겸손을 빼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종 다른 어느 것에 앞세워 강조하곤 했습니다.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빌립보서 2:3).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남을 높이고 칭찬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달을 줄 알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를 이해하며 그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겸손함이 진실하고 지속적인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은 단지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 일만큼이나 남의 일에 관심을 주고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빌립보서 2:4).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함께 또는 먼저 챙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배려와 섬김의 실천이 겸손을 더 진정한 겸손이 되게 합니다.

참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으며(마태복음 20:28)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마태복음 21:7) 겸손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스가랴 9:9).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리이고 삶의 목표라면 겸손은 우리가 갈고닦을 첫 번째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당연히 요구되는 또 다른 덕목은 정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정직했다가는 이용당하고 손해 보며 경쟁에서 뒤처져 바보 되기 쉬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서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 정직함 때문에 손해 볼 것 같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사회에 팽배한 의심과 불신과 미움을 쫓아내며 사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주된 근거는 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직함 때문에 손해볼 것 같아도 정직해야

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정직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까운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잠언 21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정직이 주관적이고 사람의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정으로 한결 같이 정직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평소에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불리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버릇이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에 관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외우게 하는 것은 평생 정직한 삶을 살게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은 부모들이 늘 정직함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검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검소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은 많습니다. 성경에서 검소와 긴밀하게 연관된 개념을 살펴보면 검소한 삶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검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물질적 부(富)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누가복음 12:15). 물질적 부가 일정 부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 부가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소유에 대한 탐심은 최대한 버릴수록 좋습니다.

성경에서 검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마도 ‘자족’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산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성경에서 자족만큼이나 검소에 긴밀히 관계되는 개념이 ‘절제’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탐욕을 제어하고 매사에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백성과 영적인 삶을 사는 백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검소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나눔’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무조

건 안 쓰고 아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곳에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쓸데없는 일에 최대한 절약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자산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따라 형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는 최대한으로 아끼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가능한 남과 많이 나누기 위하여 나에 대해 절제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산다 해도 나눔이 없는 삶은 보람 없고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절제한들 나눔의 실천이 없으면 인색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절제의 삶은 이 세상에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검소와 관련된 또 하나의 성경적 개념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요체는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가 가진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일 뿐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식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것이 맡겨지든 작은 것이 맡겨지든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에게 맡겨진 재물이 많은 적든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오직 주인을 위해,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며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이나 사치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족히 쓴다고 해서 그것을 탐내고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수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청지기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검소한 삶을 살도록 하는 원천적 힘과 지혜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재물을 다 쓰자

성경은 검소와 관련하여 부, 자족, 절제, 나눔, 청지기 정신을 말하며 이 모든 것을 공통되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를 탐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알며 절제하고 나누기를 힘쓰며 오직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삶의 자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검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도록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는데 영생에 관심, 확신, 소망도 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영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소는 영생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죄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불의하게 긁어모은 재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다 써야 할 재물을 여전히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죄의 이유가 됩니다.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탐욕과 게으름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것은 청지기 정신의 전적인 결여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되고 본질적이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

은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하며,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나누기를 힘쓸 때 검소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을 잃는다면 기독교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곧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차이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소금 맛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 뿐 아니라 검소하게 사는 것, 즉 자족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나누며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르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충성되게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겸손과 정직과 검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세이고 무기입니다. 겸손과 정직과 검소의 삶을 사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얻게 되는 첩경이라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성령의 역사로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다

- 독일 진젠도프의 선교사역 출발지 헤른후트



독일과 체코 국경지대에 있는 작은 도시 헤른후트(Herrnhut)는 니콜라우스 진젠도프(Zinzendorf·1700~1760)의 고향이다. 주민 5,000여 명이 사는 이 작은 도시에 수많은 여행자가 찾아온다. ‘주님이 지키시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헤른후트가 주목받는 것은 독일 교회사의 두드러진 한 부분인 진젠도프의 삶과 신앙, 그가 이루어 놓은 교회와 선교에 관한 관심 때문이다.

진젠도프(Zinzendorf)의 가족과 경건주의 믿음

진젠도프는 유럽의 독수리였고 신앙과 선교에서 왕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선교에 바쳤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견하고 10여 개가 넘는 선교 기관을 여러 나라에 만들었다.

작센(Sachsen) 지역의 진젠도프 백작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모든 영향력과 부를 헌신했다. 진젠도프의 아버지는 왕의 비밀자문관이었고, 1722년 스물두 살 청년 진젠도프는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어머니, 삼촌과 외할머니가 바라던 대로 왕의 자문관으로 초빙되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자문관이 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더 원했다.

일찍이 부모를 여윈 진젠도프는 신앙심이 돈독했던 외조모 헨리에타(Henriette



손옥순 선교사
독일

Gersdorf)에게 경건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었던 필립 스페너(Spener)와 절친했던 헨리에타는 진젠도프가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사랑, 따뜻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갖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젠도프가 깊은 믿음을 갖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후 가톨릭 세력의 신성 로마제국과 개신교를 받아들인 자유도시들 간의 ‘30년 전쟁’으로 800만 명이 죽음당하는 큰 고통이 이어졌다. 이러한 피폐함 가운데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각성과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신앙의 전통에서 어린 진젠도프는 “천 번 이상 주님이 나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며 나도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라고 일기장에 썼다. 그는 “나는 4살 때부터 주님을 사랑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 것을 결심했다”라고 말한다.

진젠도프가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교사이며 그리스도 없는 심장은 선교지”라고 했다.

모라비안 교회: 헤른후트에서의 사역

모라비안(Moravian)들은 지금의 체코 동부 모라비아에 살던 사람들로, 가톨릭의 모진 박해를 피해 독일 작센 지역과 폴란드, 네덜란드 등으로 피난을 떠났다. 재산 몰수, 투옥, 고문, 화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믿음의 가족들이 된 이들은 안 후스를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온 연합형제단이었다. 진젠도프는 헤른후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이들 난민을 자



헤른후트 마을 중앙에 있는 모라비안형제교회 | 사진제공 이태형 기록문화연구소장

신의 영지에 정착하게 하고 교회에 받아들였다. 1722년 헤른후트에 모라비안 교회가 탄생했고, 이들로 인해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진젠도프는 1728년에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구역예배와 같은 것이었다. 미혼의 청년들을 남녀 그룹으로 나누고, 부부와 어린이반도 만들었다. 모임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진취적인 동시에 내적인 것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다. 남자 청년들이 함께 살던 집을 ‘형제의 집’이라 불렀는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집 건축과 목공일, 도자기 공예품, 담장 쌓는 일, 정원 만들기 등에 달란트를 사용했다.

헤른후트 교회의 믿음과 정신을 요약하면,

-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 이웃을 사랑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었다.

- 더불어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 안에서의 은사 즉, 병 고침, 예언과 방언의 은사들을 인정했다.

진젠도프와 모라비안 형제단은 유럽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공동체를 이루며, 이후 2세기에 걸쳐 세계선교의 본부센터의 역할을 감당했다.

배척당하다

진젠도프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으로 여김을 받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경의 지나친 해석 등으로 지역의 전통적 교회들로부터 배척당했다. 그는 1731년 교회 <영감(Inspiration)>의 요한 록

(Rock)이란 예언자와 교제하면서, 설교 중에 적절치 않은 어휘 사용 등과 광신적인 행동을 보였다. 작센의 루터교회는 헤른후트 교회사역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진젠도프는 자기를 비난하는 루터교에 저항하며 한동안 루터교 목사로 안수받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1735년 마침내 루터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는 네덜란드에 머물던 1736년에 작센 왕의 새로운 법령을 통해 작센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당했다. 하지만 헤른후트의 형제교회는 지도자인 진젠도프가 추방당한 뒤에도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했으며, 해외 선교사역을 함께 이끌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진젠도프가 깨달은 것은 “모

진젠도프와 모라비안 운동



1722년 진젠도프는 로마 카톨릭교회와 보헤미아 국가교회의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어온 90명의 모라비아 기독교인을 받아들여 자신의 영지에 정착하

게 하고 이후 ‘모라비안 운동’으로 알려진 경건 운동을 이끌며 선교에 일생을 바쳤다.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은 안 후스의 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개신교도로, 진젠도프의 영지에 정착지 공동체를 세우고 이곳을 헤른후트(주가 지키신다)라고 이름 지었다. 공동체는 1727

년 300명 규모로 확대되고, <모라비안 형제단 (Church of the Brethren)>으로 발전한다. 이때 공동체 ‘소모임’(Band)이 처음 구성되는데, 2~3명 단위로 주일마다 저녁 모임을 했다. 그 해 8월 13일 진젠도프와 모라비안들은 기도와 금식 중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다음 해 카리브해 식민지 섬들과 그린랜드 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한다.

4년 후인 1732년, 공동체는 5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속회는 80여 개에 이르렀다. 이때 레어나드 도버와 데이비드 리치만을 카리브해에 파송하면서 개신교 최초로 선교사들이 유럽 대륙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아프리카 기아나에 파송된 선교사 160명 중 절반 가까운 75명이 열병과 풍토병으로 죽었지만, 모라비안 형제단은 선교사 파송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는 헤른후트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진젠도프의 개인적인 삶도 평탄하지 않았다. 아내 에어드무트(Erdmuth Dorothea)와 1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그중 4명만 성인 나이까지 살아남았다. 에어드무트는 영적 힘을 가진 사람으로, 현명한 조언과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진젠도프를 도왔으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그녀가 먼저 사망했다.

선교의 부르심: 카리브해와 그린란드, 아프리카, 미국 필라델피아 선교사역

진젠도프의 선교 비전은 전 세계에 영생의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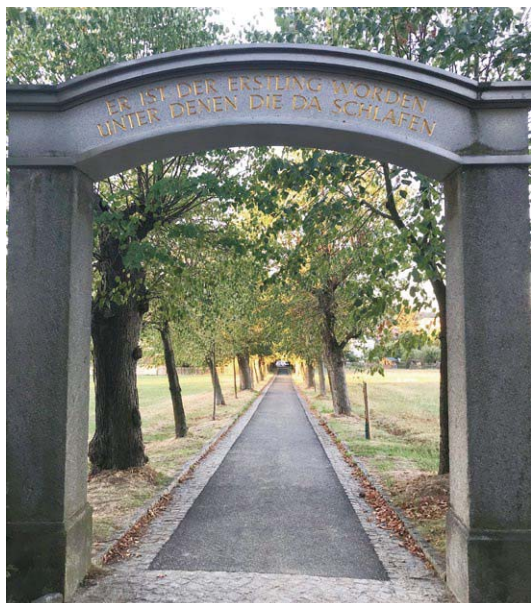
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는 인도로 파송된 덴마크 선교사 바톨로메우스를 15세에 처음 만난 이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고 선교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카리브해 섬들에 대한 선교는 1731년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6세 대관식에서 기독교인 식민지 사업가 울리히(Urlich)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식민지의 사탕수수 농장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2년 후 토비아스와 15명의 선교사를 세인트 토마스(St. Thomas) 섬으로 파송했다. 다음 해에는 기아나에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세인트 크루스(St. Croix) 섬에도 11명의 선

150년간 2,158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들은 대부분 평신도였으며, 목공기술, 농업 기술을 배워 선교지에서 이를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했다. 선교사들은 카리브해 식민지 농장에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도라고 여겼으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기도 시간표를 짜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중시하는 모라비안 공동체의 전통은 헤른후트 기도서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728년 5월 3일, 진젠도프가 찬양모임에 나온 형제들에게 다음 날을 위한 간단한 말씀을 건네준 뒤 저녁마다 간단한 성경 구절과 찬송을 소개하고, 다음 날 아침 각 가정에 전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가장 널리 확산한 헤른후트 매일 묵상집 『로중(Die Losungen)』의 탄

생이다. 독일어 로중(Losung)은 ‘제비 뽑는다’라는 의미의 동사 로젠(losen)에서 파생된 명사로, 1,800개의 구약 성서 구절에서 매일 제비뽑기 식으로 선정된 데서 나온 이름이다. 당시 제비뽑기에 의한 말씀 선택은 신비주의적 사고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공동체원들은 그날의 구약성서 말씀에 대응하는 신약성서 말씀을 선택하고, 이 두 개의 말씀에 대해 찬송과 기도문으로 응답했다. 매일매일의 짧은 말씀과 기도문은 “병사들이 싸움터에 나가면서 지니고 가는 중요한 암호”라는 의미를 담아, 하나의 강력한 영적 무기로 여겨졌다. 헤른후트 기도서는 1731년에 처음 출간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어를 비롯 61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고 있다.

만남 편집부



교회와 무덤 입구 아치에 부활의 말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는 말씀이 새겨져있다 | 사진제공 이태형 기록문화연구소장

교사를 파송했다.

카리브해로 떠난 선교사들은 사역의 꽃을 피우기도 했지만, 말라리아 등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식민지 농장주들은 노예들이 크리스천이 되면 일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선교사역을 방해하고 선교사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 헤른후트 정신이 깃든 맹세인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의 가신 길을 따르다”와 같이 그들은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지만, 헤른후트 형제교회에서는 진젠도프를 향해 “당신이 보낸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곳에 가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진젠도프는 1739년 1월 29일 지금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속한 세인트 토마스 섬에 공식 선교사로 도착했다. 유럽을 떠난 것은 처음이었다. 6개월 동안 진젠도프는 매주 토요일 저녁 모임을 하고 800여 명의 노예에게 복음을 전했다. 저녁에

시작된 예배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영적 탄생은 정말 대단했다. 1753년에는 매주 4,000여 명이 예배를 드렸다. 이들 선교사를 파송한 주민들은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부응하여, 식민지 농장 노예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헤른후트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00여 명에 이르렀다.

진젠도프는 영국의 성령운동가 존 웨슬리(Wesley)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 예나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스팅겐베그(Spangenberg)가 헤른후트에 온 뒤 진젠도프를 미국 필라델피아에 파송, 선교를 확대했다.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갔던 웨슬리는 조지아로 가던 배 안에서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던 중에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행동하던 모라비안 형제단의 신앙심에 깊은 인상을 얻었다. 웨슬리는 1741년 진젠도프와 반율법주의 논쟁을 벌이며 결별하지만, 진젠도프와 헤른후트 모라비안 교회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도’와 말씀 중심의 예배, 형제들을 서로 세우는 신앙조직(Bands)은 감리교 창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젠도프는 2년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고 행정에 유능한 스팅겐베그 선교사는 미국에서 헤른후트 교회의 선교사업의 꽃을 피우는데 리더 역할을 했다. 이후, 세 명의 선교사가 그린란드로 들어갔다. 1881년까지 19명의 순교자가 나왔지만, 1,545명의 에스키모인이 구원받았다. 이에 앞서 1736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불굴의 용기를 지닌 헤른후트 사람이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갔다. 명령을 받은 지 단 7일 만에 아프리카로 떠난 것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폭풍은 잔잔해질 것이다

진젠도프는 1743년 2월 14일 영국에서 독일로 돌아오는 배를 탔다. 폭풍을 맞아 배가 흔들리고 거센 파도가 들이쳐서 승객들이 몹시 불안해했다. 배를 책임진 개리슨 선장은 “가까운 항구로 들어가겠다. 항구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위험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알렸다. 이때 진젠도프는 “여보시오, 선장님! 2시간 안에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안정된 바다를 항해할 것이요”라고 소리쳐 말했다. 2시간 후, 과연 사나웠던 파도가 사그라들고 파란 하늘이 다시 나타났다. 선장이 진젠도프에게 “바다가 이토록 조용해질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묻자 진젠도프는 “나는 약 4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나의 영혼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 폭풍이 2시간 안에 사그라들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일로 인해 개리슨 선장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진젠도프와 깊은 우정을 나누며 ‘헤른후트 선교배’ 선장으로 진젠도프의 선교사역에 동참했다.

오늘날 헤른후트 교회 사역

현재 헤른후트에는 모라비안 형제단 신도들의 묘소와 함께 소박한 모라비안 교회가 남아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는 창고처럼 지은 소박한 단층 건물로, 예배실 안에는 십자가도 성수대도 없고 강대상 하나와 긴 나무 의자들 뿐 이다. 말씀 중심, 회중 중심의 교회당이다. 헤른후트 형제교회 집사회는 요양원, 장애인 봉사, 유치원 및 숙박 시설 등을 운영하며 매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과 피부에 와 닿는 실천적 나눔의 봉사



헤른후트 형제교회 추수감사절 모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리타니아 선교사역

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영락에 속한 모든 교우님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진젠도프가 가졌던 깊은 영성을 본받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길 소망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복한을 비롯한 세계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매진하게 되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만남**

본 글은 진젠도프 이해를 위해 독일 교회사 (Deutsche Kirchen Geschichte)와 진젠도프(Nikolaus Ludwig Zinzendorf)에 관한 책을 참고했습니다.

사진제공 © Evangelische Brüder-Unität 진젠도프 재단

18일 간 온라인 성경통독하며 말씀행진·기도행진으로 준비



청년부수련회 - <말씀행진&기도행진>

겨울수련회를 현장에서 함께 모여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에서는 지난 2월 25~27일로 예정한 겨울수련회를 준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는 의미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 온라인 zoom을 통해, 매일 밤 9시 반부터 약 1시간가량 릴레이 <말씀행진&기도행진>을 했습니다. 대한성서공

회에서 청년 세대를 위해 10년간 공들여 번역한 '새한글성경'으로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매일 6장~7장씩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통독하고,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보은 성도
청년부 주는 나무
청년회 서기

올해 청년회 서기를 맡으면서 릴레이 <말씀행진&기도행진>을 담당할 저는 처음 이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것과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현상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련회이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지, 게다가 밤늦게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시간에 시작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적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시며 말씀행진과 기도행진의 마지막 날까지 감당하도록 힘과 체력을 주셨습니다. 또 많은 청년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처음 40~50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60명을 넘기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귀하고 복



철야기도행진은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였으면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힘이 있었기에,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참여하신 많은 청년, 멘토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릴레이 말씀행진과 기도행진은 마무리되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의 마음에 품은 말씀과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릴레이 말씀행진과 기도행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수련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제일 걱정되었던 부분이 오이코스 축복기도회 후 진행되는 금요철야기도회였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기에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진행되는 철야기도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에도 하나, 둘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힘을 모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곳으로부터 많은 응원과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신청하

신 많은 청년의 신청서를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의 머리와 생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다 해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귀한 겨울수련회 시간이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함께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철야 기도행진, 이두희 목사님의 귀하고 유익한 새한글성경 말씀으로 진행했던 말씀행진, 한철호 선교사님의 뜨거운 말씀으로 삶에 많이 적용할 수 있게 된 선교행진까지, 되돌아보니 수련회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로 넘치는,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영락의 많은 청년이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의 가르침과 넘치는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잘 흘려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남**

위풍당당 사랑부

저는 사랑부 교사로 예배 PPT와 온라인예배 송출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처음 시작되었던 2년 전 사랑부도 온라인 방송을 송출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부 교무 선생님께서 스스로 인터넷으로 방송 송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유튜브를 통해 공부한 후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도 따로 없어서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에 의존하여 간격 조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수도 잦았지만, 혼자서 묵묵히 감당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이 일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매 주일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 만일을 대비해 저도 배우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옆에서 배워가며 프로그램을 깔고 이것저것 연습해보고 질 좋은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활동할 수 없었기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조금

씩 영상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축하 시간에 학생에게 편지를 읽어주고는 했는데,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음성으로 편지를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모아 생일 축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담당한

선생님은 핸드폰 앱을 이용해 영상을 편집해서 예배 시간에 송출했습니다. 이 또한 은혜로운 시간 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울동하며 따라 했던 말씀 암송을 각자 집에서 울동 영상을 촬영해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선생님들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젊은 선생님들을 위주로 영상팀을 모집했고 담당을 정해 매 주일 송출할 봉헌송 영상, 한 달에 한 번씩 송출하는 말씀 챗 영상, 생일 축하 영상 등을 만들어 송출하면서 조금씩 온라인예배에 적응해 나갔지만 늘 아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난 후, 교육부에서 방송 장비를 구매해주었습니다. 장비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그래도 운영 실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랑부와 비슷한 환경인 유아부에 찾아가 전도사님께 프로그램에 관한 소스도 받고 예배 송출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상으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배웠습니다. 노트북 카메라를 통해 송출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화질로 송출할 수 있었고 영상담당 선생님들도 회를 거듭할수록 더 멋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2년 봄맞이 성경학교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협소한 사랑부가 아닌 <드림홀>에서 첫째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늘 하던 대로 예배 PPT를 준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림홀>에 들어섰습니다. 압도적인 장비



김현주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사랑부 교사

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했습니다. 여호와이레 하나님께서는 화면 송출과 자막송출, 예배 PPT 담당 등 모든 필요한 곳에 선생님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장비 사용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IT미디어 선생님들과 고등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멋지게 송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부예배 중 찬양 시간은 기쁨과 열정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모두 하나 되는 모습은 마치 시편에서 등장하는 춤추고 소고치며 찬양하는 인물들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봅니다. 특히 뒤쪽에서 매우 열정 넘치게 찬양하며 울동을 따라 하시던 두 분 장로님의 모습을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첫째 날 첫 번째 활동은 위풍당당 행진곡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찬양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들 수 있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의논하며 주제에 맞춰 8음절의 글들을 적어 냈고, 그 글들을 추려 문장을 만든 후, 대표 학생이 문장을 보

위 풍 당 당 사 랑 부

2022년2월19일
♩ = 120

Words by 김다이 김종림 김예주 윤영희
이정현 이인수 정서빈 홍성배
Music by 정서빈 백아슬기

1. 우 편 뭐 든 알 - 수 있 - 어 주 님 함 께 하 - 신 다 - 면
2. 우 리 모 두 사 - 랑 해 - 오 세 상 속 의 반 - 박 반 - 박

5. 두 손 잡고 달 - 려 가 - 자 사 랑 스 러 운 - 뽀 미 소 -
웃 음 꽃 이 피 - 어 나 - 오 자 신 있 게 하 - 뽀 아 게 -

10. 위 풍 당 당 사 - 랑 부 - - 믿 음 으 로 행 - 진 하 - 자

14. 위 풍 당 당 사 - 랑 부 - - 씩 씩 하 게 찬 - 양 해 - 오 - 위 아!

고 노래를 부르면 강사 교수님께서 음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역시 사랑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훌륭하고 멋지게! 그 자리에서 창작 울동까지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너무나 멋진 학생들!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곡은 사랑부에서 매 주일 파송의 찬송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숨씨로 너무나 멋진 찬양곡이 완성되었어요.

둘째 날 송출하는 말씀대로 <위풍당당> 영상은 시편 말씀 중 10편을 택해 마을별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녹음 또는 동영상으로 파일을 받았습시다. 올해 신입으로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신 너무나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영락애니아의 집에서 보내주신 영상에서 반가운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사랑부에서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친구의 목소리도 녹음파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낭독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부에 대해 막연히 낯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시면 순수한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행복한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감사와 감동하는 소중한 곳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랑부로 초대합니다. **만남**



부르심에 순종하여 커진 은혜와 기쁨

‘피곤함’이라는 키워드로 2021년을 돌아보고 이제 올해를 소망하는 나눔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한 키워드에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함...?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도 보이는 데다, 섬기는 자리에 어울리는 단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에 나눔에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함으로 키워드를 정한 것은, 이 피곤함이 작년 교사로서의 저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되기보다는 자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던 때를 기억합니다. 거리두기 정책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없는 텅 빈 예배실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촬영하고 준비하여,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 또한 그런 교사 중 한 명으로 매주 텅 빈 교회에 나와 학생들을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송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드릴 때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특히 작년 초에는 예배 송출을 내가 전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에 섬김을 마치면 녹초가 되어 귀가했습니다.

또 아동부 성경학교와 같은 대형 행사도 함께 준비하면서, 시간을 더 내어 섬기는 시간과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들이 제게 육체적인 피곤함을 준 것은 사실이었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이게 뭐 하는 걸까...’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말들이 제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내내 저는 교사를 시작한 이후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곤한데도 저는 왜 계속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교사로서 받은 사명이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여,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보다 낮기에 순종했더니,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제게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면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로서 봉사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그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이자 제게는 교사로서 섬김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피곤함이 제 육체를 힘들게 할지라도 영의 기쁨으로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기쁨이 가득했던 2021년을 보낸 뒤, 제가 올해 소망하는 것은 작년보다 더욱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을 맡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기에 도움을 주는 환경 조성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힘든 과정과 상황이 있겠지만, 기뻐하며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교회에서의 섬김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열정으로 시작한 교사로서의 섬김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일로 경험했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주어진 저의 사명은 기쁨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해야 한다는 지나친 생각으로 섬김이 부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저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만남**



김예찬 성도
안양·수원교구
초등1부 교사

깨닫는 은혜

이화선



‘이화하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이화선 작가는 말씀묵상 그림일기
「나에게 꼭 붙어있으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등을 출간했다.

뱅글뱅글 돌며
반복되는 제자리걸음 같지만

은혜



그래도 희망은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나는 은혜로
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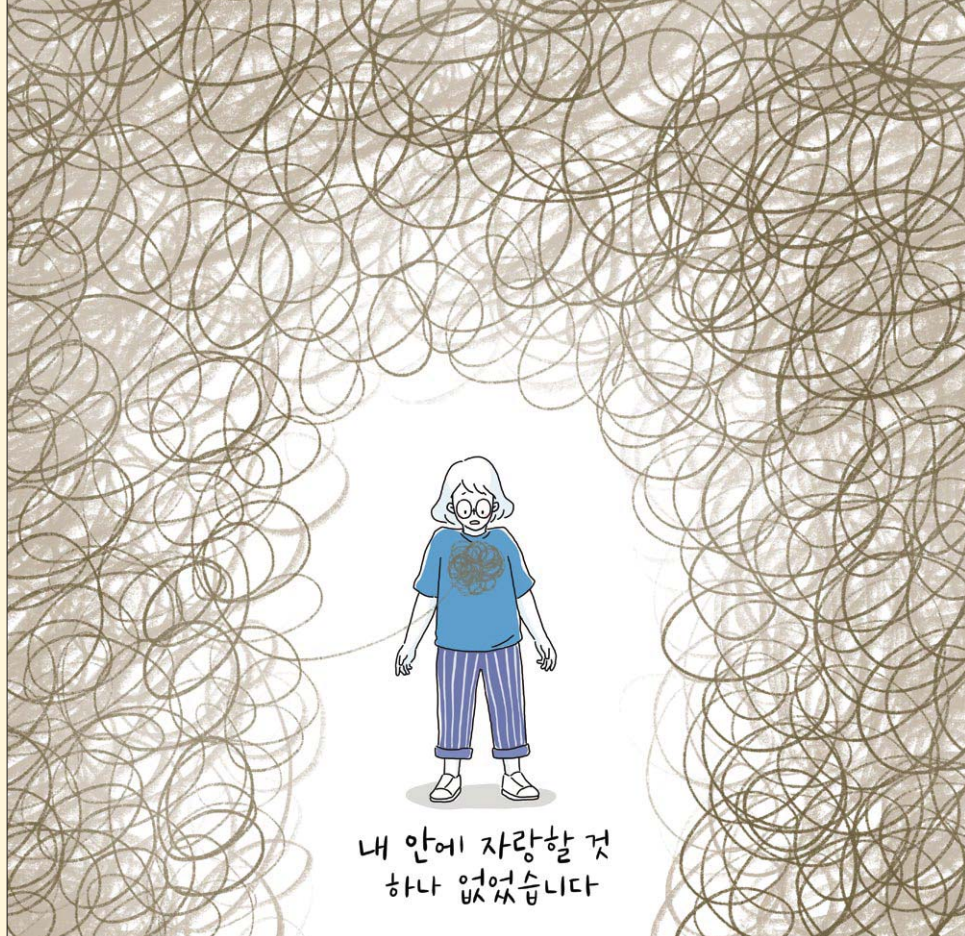
은혜



그러나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달자
회개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은혜가 어디 갔지
...?!





은혜로 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육신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모습에

결코 의로운 것 하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값없이 주신 은혜 속에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붙잡을게요...



은혜로 살아가려 해도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은혜의 옷을 입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가할 수 없어요



성금요일과 부활절 공연을 준비하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과 사역이 무너진 지 벌써 3년이라는 기간이 되었다.

매년 성금요일예배 공연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성도들과 함께 무대에서 호흡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이렇게 멈추고 보니 몸속 깊게 느낀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마지막으로 선교부 문화선교에서 올렸던 성금요일 작품은 <뮤지컬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많은 분이 기억하시리라 생각된다.

3년의 기간이 흘러 2022년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을 맞는 문화선교는 또 다시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고 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 당시 유대사회에서 지체 높은 신분이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고백했다. 그는 집안 묘소로 준비했던 새 무덤을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를 위해 내놓았고, 결국 부활의 최대 증인 중 하나가 되었다. 뮤지컬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조명한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또

요셉의 모습에서 투영되는 우리의 모습까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품이 되리라 생각한다.

극작: 유혜정, 작곡: 차경찬, 임수현, 연출: 박준영 외 20여 명의 배우 스태프가 오미크론 변이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준비해 가고 있다. 기존의 뮤지컬팀 위트니스의 팀원에 더해 교육부의 협조와 광고로 고등부와 청년부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더욱 감사하다.

소속 부서는 다르지만, 선교부의 문화선교에 마음을 두고 모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공연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생각이 든다.

2022년의 <아리마대 요셉>은 준비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많은 분이 어렵지 않겠냐고 하셨고 바이러스 확산으로 모임에 제한이 있었으며 팀원들과 가족들의 코로나 확진이 이어지면서 모임의 횟수도 제한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매번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음을 매해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분명하게 깨닫는다. 이번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공연은 영상으로 제작된다. 현장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하지만 영상으로 제작하므로 더 많은 성도가



승민성 집사
인천교구
선교부 문화선교 서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운데서도 배우와 스태프들은 매주 수·금·주일마다 모여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설렘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번 〈아리마대 요셉〉 공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용기가 필요해’이다.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며, 용기를 내어 죽음까지 각오(빌리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함)함을 표현한 노래 제목과도 같다.

‘용기가 필요해’에서 말하는 용기는 세상이 말하는 용기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비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겪는 믿음의 시험대와 같은 동일한 자리이지 않을까? 3년이라는 잃어버린 기간에 우리는 어딘가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야’, ‘내 삶을 변화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우리 믿음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메시지로 전하려고 한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고백은 용기를 내기 전과 후의 변화에 중점을 둔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심령의 변화와 용기 말이다. 그런 요셉을 예수님은 무척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자신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인 부활을 준비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택하셨으니 말이다.

성금요일 부활주일 묵상 공연 〈뮤지컬 아리마대 요셉〉 공연 영상을 통해 함께하시는 모든 분과 많은 성도님에게 귀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세상을 향해 용기 내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얼마 전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선생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故 이어령 선생님은 이 시대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지성이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청렴한 삶과 맑은 가난을 강조하시며 청교도적 삶을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저서가 있지만, 특별히 마음에 남는 책 중 하나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딸 이민아 목사의 9주기를 맞아 나온 책입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널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거나 서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 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중략). 잘 자라 민아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먼저 생을 달리한 딸에 대한 회고이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에게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을 해주지 못한 아버지의 담담하지만 절절한 사랑 고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글을 다시 보며 이 시대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알고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고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시대이지만, 정작 ‘진짜 사랑’은 찾기 힘든 사랑의 가뭄의 시대에 사는 듯합니다. 또한 이미 왜곡된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 같이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가장 흔한 실수는 학원을 보내주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하여 더 좋은 사랑을 주기에 부족했던 본인을 자책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왜곡된 사랑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한 번의 진실한 대화, 혹은 한 번의 진실한 관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왜곡된 사랑으로 자기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여기며 자신을 끔찍하게 아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에 목말라 하며 상대방



전재량 전도사
마포·영등포교구
대학부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거나 서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 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중략). 잘 자라 민아야,

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형태로 자기애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도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연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정인이 사건’의 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가 본인들의 버킷리스트였다는 사실은,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사랑하며 아낀다는 이유로 입양했으며, 양육과정에서 본인의 사랑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와 폭력을 가해 16개월의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렇듯 ‘왜곡된 사랑’은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혹은 죽음에 몰아넣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인 이유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쓰였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왜곡된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진실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을 ‘더욱 정직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감’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권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헌금이나 기도, 예배 등을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하면서도 사랑이라고 외치는 신앙의 첫걸음이 신앙의 연수를 채워갈수록 그 모습을 벗어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며 그 관계 안에 자유로워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여정을 신앙생활에 포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고, 표현하고 싶은 방식의 사랑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연인 혹은 교회의 성도가 느끼기에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울수록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는 4월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큰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뿐 아니라 마음속 깊게 느끼는 기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만남**

활기찬 신앙을 위한 명랑(明朗)상담

명랑상담

2004년부터 7년간 「만남」에는 ‘상담사례’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주로 성경의 내용과 신앙생활에 대한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문제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주는 형식의 내용들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상담사례’는 사소한 신앙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유익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자살은 마음의 힘이 사라진 절망에 기인합니다. 생의 감각을 살려주는 소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없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한 상담 전문가들의 왕성한 활동과 동시에 일상 가운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평범한 상담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만남」에서 상담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만남」에 ‘명랑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좋은 상담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희망의 빛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독교 상담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명랑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쉬운상담

상담은 말 그대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담하고 해주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뒷담화로 좋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일상의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신앙의 원초적 활동입니다.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상담도 기도처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많은 분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전문적인 일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을 담백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부담 없이 나누는 평범한 활동이 상담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상담을 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위한 이론을 배우고 그에 따르는 상담기법을 실천하면서 오랜 시간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하는 상담자의 수련과는 다르게 기독교 상담은 신앙의 기초가 탄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상담사역뿐만 아니라 자치 단체와 교구의

한 구역, 성도와 성도들의 작은 만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 현장에서 상담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담은 쉽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신비로운 기독교 상담의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로 함께 동행 해 주십시오. 명랑상담!

삼자대면(Trialogue)

상담 이야기의 첫 시작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위커홀릭(workaholic)이라는 용어를 만든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 신학교 목회상담학자 웨인 오츠(Wayne Edward Oates, 1917~1999)는 상담의 자리에는 삼자(三者)가 대면한다고 말합니다. 그 삼자란 상담자, 내담자(상담을 요청한 사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웨인 오

츠의 견해야 말로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삼자대면에 관련한 상담 사례를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자로 널리 알려진 폴 트루니에(Paul Tournier, 1898~1986)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사소하고, 좀 당황스러운 일을 환자와 같이 나누도록 지시하셨다. 그것은 내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환자는 몇 주 동안 나에게 찾아왔는데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 주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이 책에 쓰신 그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가 정말로 그 조용한 시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두려워하던 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질문임을 간파하고 나는 ‘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직접 한번 해봅시다.’하고 말했다.

우리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되도록 뜨겁게 기도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에게 영감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건축이 될 것인가? 그러나 영감은 커녕 그 달

에 지불해야 할 청구서밖에는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오늘 밤엔 좀 앉아서 아내와 집안의 재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아무 일도 안 된다! 돈 문제로 걱정할 게 아니라 환자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바로 그 때 절체절명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 사람에게 네가 방금까지 생각했던 일을 고백하라.’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 않겠다고 용을 썼지만 결국은 고백을 했다. 그 환자는 놀란 표정을 하고는 소리쳤다. ‘바로 그게 제

문제입니다! 저는 내연의 여자가 있기 때문에 매일 아내에게 돈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한답니다.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지요?’

마침내 진실이 공개되자 우리는 그의 문제를 함께 직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영적’ 멘토의 가명을 쓰고 위장하려고 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순간은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일 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새롭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다.’ **만남**



전도 캠페인

전도행진 365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3월 13일(주일)~4월 17일(주일)

#가족에게도 '가족전도'

#이웃에게도 '관계전도'

#하나님에게도 '예배로의 초대 : 4월17일(주일)'





2023년 창단 50주년을 준비하는 갈보리찬양대

갈보리찬양대 대장 이창선 장로 · 총무 이인태 집사



2009년 미주순회연주 중 LA 크리스탈교회 찬양에서 많은 청중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갈보리찬양대는 101명의 대원으로 창단해 1973년 6월 10일 첫 예배를 드렸다. 현재 180여 명의 찬양대원이 주일 2부예배(오전 9시 30분)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갈보리찬양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찬양을 암기하는 것이다. 악보를 보지 않고 암기해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시간을 연습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는 약 50~60여 명의 찬양대원이 주일예배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토요 연습에는 그보다 많은 인원이 연습한다. 코로나19때문에 찬양대석에서는 인원을 조정해야하는 것이 안타깝다.

토요 연습이 허락되고 더 많은 인원이 노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 교회의 1호 지휘자이자 영락교회 장로이셨던 고 박재훈 목사가 99세로 소천하셨는데, 98세에 생애 마지막 작품인 ‘요한 수난곡’을 작곡했고 영락교회 갈보리찬양대에 연주를 의뢰하셨다. 이 음악을 박 목사 생전인 2021년 부활절에 연주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년간 연기되었고, 박 목사가 2021년 8월 2일에 소천하면서 그분의 요한수난곡 연주 의뢰는 유언이 되어버린 것이다. 박 목사는 후두암으로 인해 거의 음성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주 지휘자에게 전화하시며 곡을 설명했고, 말로 소통이 안 되면 수기로 편지를 써서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의지를 영락교회와 갈보리찬양대에 밝혔다. 올해 부활절에는 어떻게든 연주해야 한다는 각오로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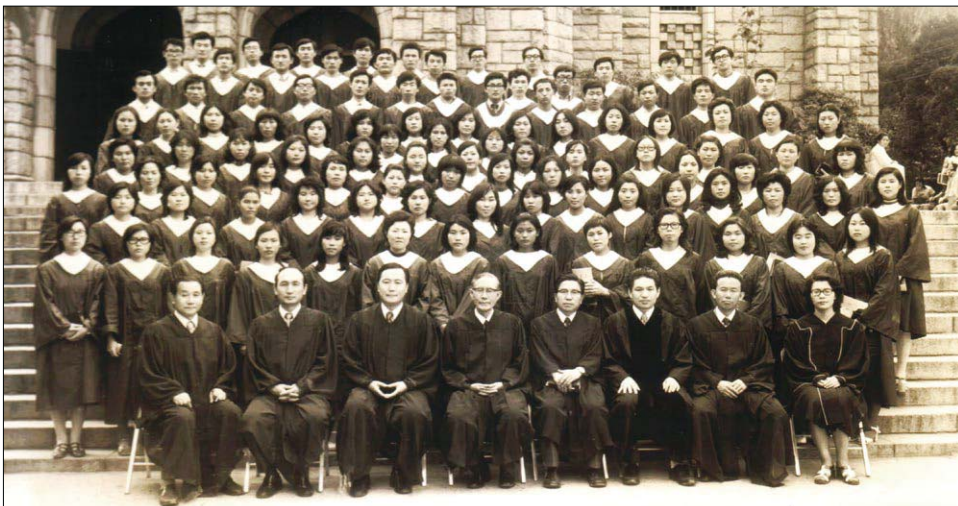
은 대원이 토요일마다 모여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엄격한 규칙으로 철저한 방역을 지키고 있다. 올해 부활절 저녁 예배(4월 17일 오후 5시) 때 베다니홀에서 6명의 독창자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갈보리찬양대가 연주할 예정이다.

갈보리찬양대는 초대 지휘자 김두완 장로가 10여 년간 이끌었으며, 84년부터 김종일 장로가 2대 지휘자로, 87년 안재성 안수집사가 3대 지휘자로 섬겼고 95년 2월 박신화 장로가 현재까지 지휘하고 있다. 그동안 고 김신경 장로를 비롯하여, 지선장, 박인규, 박명하, 조건진, 이상은, 박남진, 차재능, 정천우, 박일환, 조용철 장로가 찬양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이창선 장로가 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지휘자인 박신화 장로는 현재 이화여대 음대학장으로 있으며, 오르가니스트 박소인 교수는 장로회신학대학 교수로 30년간 가르쳤고 현재는 명

예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갈보리찬양대에는 11명의 독창자가 있다. 음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성악가들로, 국립합창단과 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분, 성악전공 학생으로 구성되어있다. 외국에서 활동 중인 독창자들은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헌금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있다.

그동안 찬양대는 많은 교내외 활동을 했다. 1977년 창단 4주년 음악회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1983년 제1회 포항지방 순회연주를 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창단 10주년 기념 멘델스존의 ‘오라 찬양하자’를 연주했다. 김종일 장로 취임 후에는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했고, 전주지방으로 제2회 순회연주회를 했다. 안재성 집사 취임 이후에는 제3회 강릉 순회연주, 제4, 5회 제주도 순회연주회를 했고, 기독교 방송 선교합창제 2회 참여, 그리고 교회창립 47주년 기념음악회로 ‘하이든의 벨슨미사’를 연주했다.



갈보리찬양대 창단 첫 예배를 마치고(1973년)



2015년 중국순회연주(심천교회)

박신화 장로 취임 이후에는 1995년 햇불회관에서 있었던 제1회 성가합창제에 참가했고, ‘영국의 교회음악’으로 교회창립 50주년음악회를 열었다. 이어서 그해 12월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했다. 1996년에는 영락교회 상례찬송 테이프를 만들어 전교인의 상례 행사에 사용케 했고, 같은 해 갈보리찬양대 제1호 CD ‘Sing Unto God’을 출판했다. 1997년에는 안양성가합창제 찬조출연,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개관기념연주회로 ‘미국의 교회음악’을 연주했고, 제1회 민군연합한국교회성가예술제, 97 민군송년음악제(보병1사단)에서 연주했다.

2000년 영락교회 부활절 음악회에서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연주했는데 이 연주는 KBS FM에서 해설과 함께 정식으로 방송되었으며, CD로도 제작되어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이어지고 있다. 2003년에는 창단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음악회 멘델스존의 ‘엘리아’를 전곡 연주했는데, 이 연주도 CD 2장에 담겨 지금까지도 극동방송 등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2005년 부활절 음악회에서는 바흐의 ‘요한수난곡’, 2007년 창립 62주년 기념음

악회 헨델의 ‘유다스 마카베우스’를 연주했고 이 연주들도 CD로 제작되었다.

2009년에는 갈보리찬양대의 획기적 연주가 시작되었는데, 미주 순회연주가 8월에 있었다. 100여 명의 대원이 미 서부지역인 LA, 샌프란시스코 등을 순회한 갈보리찬양대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훌륭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감격을 교포 교인들과 나누었다. 특히 크리스탈교회에서 1000명 이상의 미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가진 연주에서는 한국 교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도 했다. 그 교회에서 올려 퍼진 ‘할렐루야’ 등의 합창이 아직도 귓가에 간직되고 있으며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

해외연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5년 중국 광저우, 심천, 홍콩 등지에서 순회연주를 했다. 중국 공안의 감시로 인해 자칫하면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화교류의 하나로 갈보리찬양대가 중국을 방문했고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 기본적으로 1,500여 명의 청중이 집결했고, 심천에서의 연주회에서는 찬양의

선교적 역할을 체험하기도 했다. 심천교회 연주가 끝난 후 그 교회 담임목사님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중 이 연주를 통해 감동받아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 하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수가 자그마치 107명이었다. 목사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하셨다. 이렇듯 주님께서서는 찬양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셨다. 물론 그동안에도 국내 지방 순회는 계속되어 경남, 부산, 대전, 강원 등 많은 지역에서 연주했다.

갈보리찬양대는 다양한 성가합창제에 초청되어 출연했다. 그중에서도 극동방송 주최 성가대합창제(세종문화회관)에 여러 차례 출연했고, 부평감리교회 주최 성가합창제에 자주 출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히 한국교회음악협회 합창세미나에 모범성가대로 자주 출연했는데, 세미나 장소가 ‘사랑의교회’로 이전된 이후에는 수요찬양축제에 출연하여 전국의 세미나 참가자와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찬양의 기쁨을 나누었다. 1996년

이후 CD도 여러 장을 제작했는데, 앞서 소개했던 음반을 비롯하여 총 9장의 음반을 출판했다. 이 음반들은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 방송되어 영락교회를 알리고 있다.

갈보리찬양대는 내년 2023년에 창단 50주년을 맞는다. 5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카네기홀 연주를 기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사정으로 녹록치 못한 실정이다. 미국순회연주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회 내에서의 연주와 지방공연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50주년 기념집 발간을 위해서도 준비 중이다.

분명한 것은 반세기의 갈보리찬양대가 명성에만 집착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간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찬양대가 되기를 대원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찬양대의 가장 큰 임무는 주일 찬양에 있다는 것을 찬양대원 모두가 명심하고 이것을 위해 오늘도 모여서 연습하며 준비하고 있다. **만남**

박신화 장로,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음악) 수상



갈보리찬양대의 지휘자 박신화 장로가 한국예총에서 개최한 ‘제35회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음악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은 예술문화 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헌신한 문화예술인들의 공익적 활동과 업적을 기리고자 매년 수여하고 있다.

박장로(사진)는 이화여대 교수이며 안산시립합창단 지휘자로서 한국합창을 전세계에 알렸고, 108장의 CD 출판과 5권의 합창저서로 한국합창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2 04 17
영락교회 부활절음악회

요한수난곡

박재훈 목사 작곡

작곡 박재훈

오케스트라 편곡 조성원

복음사가 조성환

예수 안대현

빌라도 허용석

소프라노 한나형, 남현주

테너 박승희

합창 갈보리찬양대

지휘 박신화

오르간 박소인

피아노 김은진

협연 알테무지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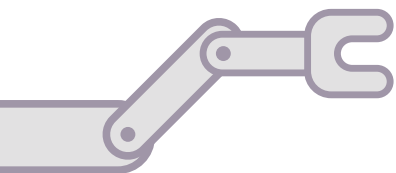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일시 4. 17(주일) 5:00pm

장소 영락교회 베다니 홀

주최 영락교회 음악부

수술시간과 출혈·감염 위험 줄이는 로봇수술



5세기 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그린 적이 있다. 당시로서는 허황한 발상이었지만 1903년에 라이트 형제는 인간이 기계를 조종해서 동력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발명하여 인류 문명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지혈 기구와 마취제의 발견으로 19세기 후반에 발전을 시작한 외과수술은 100여 년 동안 외과 의사가 직접 손으로 해 왔지만, 1980년대에 복강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었다. 흉부 또는 복부 수술은 큰 절개창을 만들어야 하므로 환자에게 큰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되지만 복강경 수술은 상처가 작아 회복이 빠르고, 미용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아 외과 수술은 상처를 좀 더 작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상처를 작게 하는 이점이 있지만, 기구의 한계로 외과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광운 안수집사
의료선교부
고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다.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한계는 2차원 화면을 통해 수술을 진행하므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기구들이 손, 손목, 손가락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으므로

수술 시 조직을 잡거나 절단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많은 경험을 통해 학습곡선을 극복한 의사만이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으므로 복잡하고 정교한 수술은 소수의 수술자만이 가능하다 하겠다.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수술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의사는 로봇을 조종하는 콘솔 앞에 앉아서 로봇수술 시스템에 장착된 카메라를 보면서 앉아 수술하므로 장시간 걸리는 수술에 유리하다. 또한 10배 확대된 3차원 영상으로 수술 시야가 보이므로 개방한 상태보다 훨씬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 환자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로봇 팔은 의사의 손가락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훨씬 움직임이 자유롭다.

환자에게는 출혈 및 수술 중 감염 가능성 감소 등 효과를 주고,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또 의료기관으로서도 환자의 입원 기간 단축, 더욱 적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 침습수술 덕에 치료 결과도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로봇수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쌓이고 일부 수술에서는 기존 표준수술법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향후 의사들은 로봇의 힘을 빌려 수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의료의 패러

다임이 변할 것으로 예측한다.

1985년 산업용 로봇인 PUMA560을 뇌수술에 사용하면서 시작된 의료용 로봇은 이후 의료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품들이 개발됐으며, 2000년 로봇수술기로서 세계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인튜이티브서지컬의 다빈치 수술 시스템이 로봇수술의 시대를 열었다(사진). 현재는 의료용 로봇이 여러 종류의 수술에 접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복강경 수술로봇은 수술자의 동작을 보조하기도 하고, 정형외과 수술 로봇은 의사가 수술 시 취하는 동작의 정밀도를 확보해주기도 한다. 또 뇌수술 보조 로봇은 영상정보를 종합하여 수술 부위의 기하학적 정보를 보조하여 좀 더 정밀한 뇌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술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산업 영역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바람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업계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았던 알파고로 인해 의료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다.

로봇수술의 단점으로는 수술 시 로봇 장착과 분리 등의 추가 시간이 필요해 전체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흉강이나 복강에 있는 장기에서는 쉽게 적용할 수 있으나 갑상샘이나 경부 수술은 수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수술보다 수술 부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수술이므로 기존 수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게 빨리 이루어지고



다빈치 로봇으로 수술하는 모습

있으며 향후 성능이 더욱 향상된 의료용 로봇이 개발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작은 크기의 수술 로봇이 개발되어 성인 장기의 거의 모든 수술은 물론 소아 수술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은 3차원 영상이 수술 의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감각이지만 촉각이 손가락에 전해질 수 있는 로봇기구의 개발도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의사가 환자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할 수 있는 원격수술도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단계에 와 있어서 향후 로봇수술이 보편화되면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보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만남**

한경직 목사 22주기 기념주간

4월 17~23일



4월 17일~23일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을 맞아 사진전(장소 미정)이 열린다. 한경직 목사의 삶과 사역을 새롭게 조명하는 강연회도 준비 중이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이사장 김운성)는 올해 한경직 목사 소천 22주년을 맞아 4월 15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시 영락교회공원묘원 내 묘소에서(예정) 한경직 목사를 추모하는 성묘 예식을 갖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선교관에서 한경직 목사기념사업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김운성 이사장 연임, 김은형 이사 및 최현우 감사 선임 등 임원 변경안을 가결했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한경직 목사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배우고 이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경직복음학교를 개설, 5주 과정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경직복음학교는 또 매주 토요일 소그룹 단위로 영성모임을 갖고 말씀 묵상과 영성예세이 쓰기 시간을 갖고 있다. 복음학교는 영락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 차수 별로 20~25명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첫 차수는 2월 26일~4월 2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6기(4월 6일~5월 16일), 7기(5월 21일~6월 25일)가 계속된다. 신청은 전화(02-2280-0292)나 홈페이지(www.kyungchikhan.org)에서 할 수 있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주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북적북적’ 독서감상문 공모대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북적북적은 대광중·고등학교와 영락중학교, 보성여고 등 영락교회와 관련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여 해마다 기독교 책임기의 범주를 확대해가고 있다. **안남**

시온찬양대와 함께 걸어 온 41년

“언젠가 오디션 받으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오디션 자리에 섰을 때 윤학원 지휘자님이 저를 알아보셨다. “네, 자리 나면 연락 주시겠다고 하셔서 여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족히 2년 반은 기다렸으리라. 첫 오디션에서 내 바로 앞 지원자는 성악 전공이었다. 대원 중 누가 이민이라도 가야 자리가 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기다려서 시온찬양대 대원이 될 수 있었고, 올해로 41년째 시온찬양대를 섬기고 있다.

1978년, 네비게이트에서 제자훈련을 받던 중 주님을 영접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의 확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주님과 첫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 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7~9) 이 말씀을 내 평생의 약속 말씀으로 붙잡았으며, 어머니, 아버지 묘석에도 이 말씀을 새겨놓았다.

시온찬양대로 섬기면서 가장 뜨거웠던 기억은 1990년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이다. 극동방송 창립 미주지역 성가합창제가 그곳에서 열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찬양대로 카네기홀 연주를 처음 허락 받았기에 찬양대 모두에게 행동질서 및 규율 지키는 정신무장교육을 철저히 준비 시켰으며 미국 내 가족 친지 만남도 전혀 허락하지 않고 오로

지 연주에만 집중했다. 카네기홀 찬양은 은혜 그 자체였다. 앙코르 곡으로 말로테의 주기도를 부를 때는 대원과 청중들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달아오른 용광로의 불덩이처럼 은혜의 도가니였다.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흘려 내리며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했다. 출국 직전까지 직장에서 휴가 결재가 안 나서 포기 할 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카네기홀에 서있지 않는가. 직장 생활에서 맺힌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 풀려나가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고 있음에 감격의 감사가 아니 나올 수 없었다. 그때 그 감격의 전율이 지금도 짜릿하다.

지금은 은행에 ‘여(女)행원’ 제도가 없어지고 사회 곳곳의 차별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여행원’이라는 별도의 직제가 있었다. 책임자가 되려면 ‘책임자자격고시’를 붙어야 대리로 승진 할 수 있었는데, 여행원은 수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있었다. 여행원 근무 10년차가 ‘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호봉 10년을 인정받지 못했다.

여행원에서 ‘여’자가 빠지고 남직원 직위 ‘행원’서열로 줄을 서게 되면서 서열 말단으로 직위 신분이 옮겨져 1호봉



송길례 권사
용인·화성교구
시온찬양대

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대리 승진하기까지엔 적어도 10년은 족히 기다려야하는 인사제도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가 심해지기도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온찬양대 입대에서부터 인내를 훈련시키셨던 것이 아닌가 싶다. 크고 작은 고난 여정을 걸어오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기도 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손만을 붙잡고 있었다. 시온찬양대에서 주일마다 찬양하며 긴 기다림 끝에 ‘여성지점장’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그 자리를 감당하기까지 새로운 걸림돌과 장애물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술도 못 먹고 골프도 못 치면서 어떻게 지점장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겠느냐는 수근댐과 비난이 간간이 들어오고, 나의 리더십을 세상잣대로 재며 비난과 헐뜯음이 방방으로 날아다녔다.

회식하기 좋은 금요일은 찬양연습이 있는 날이었다. 불편한 소리를 귀에 담지 않고 찬양대 연습실로 달려갔다. 술과 골프를 해야만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 마케팅 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구했다. 더 큰 고난은 함께 팀웍을 이뤄나가야 하는 직원의 태도였다. 고객이 사주는 술을 밤늦게까지 마시며 귀가가 늦어지는 직원을 볼 때 늘 가슴을 조였다. 지점장이 술을 못하니까 고객이탈 방지를 위함이라고 한다. 중요한 서류나 통장, 귀중품을 넣어두는 대여금고에 양주를 넣어두는 직원도 있었다.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주시옵고 직원통솔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다.

주님은 고난의 길만 걷게 하지 않으셨다. 기쁨과 감사의 길로도 인도해 주셨다. 노랑진 신사옥으로 CTS가 이전 준비를 하던 중 우리 지점을 임원께

서 방문하셨다. 타 은행에서 담보 부족으로 대출 거부를 당하셔서 대출 신청차 오신 것이다. 시스템 속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대출액이었다. 본부로 뛰어가 결정권자에게, 제가 CTS대출에 개인보증 담보할 테니 원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 했다. 그 자금은 영상선교를 위해 장비를 마련해야하는 자금이었기에 꼭 승인이 나와야 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승인 결정이 이루어져서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복음을 송출하게 되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를 위해 나를 지점장 자리에 앉히셨나 감히 생각했다.

은행에서 지점의 구조를 변경하여 금고를 이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상사와 VIP고객을 모시고 축하 세레모니를 갖는 것이 통례이다. 고객 중 여성장로님이 계셔서 업무 개시 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서를 단 둘이 가졌다. 레위기 제사 순서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나의 중심을 보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간단하지만 충만함으로 기도시간을 가진 것이다. 무슨 배짱으로 돼지머리도 안 차리고 하객을 오시게 하다니, 전 통도 무시하고 제멋대로며 건방지다는 비난이 똥똥 떠다녔지만 내가 준비한 것은 오직 금고 앞에 놓인 방석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배짱뿐이었다.

내가 다니던 은행 다른 지점의 돈을 내가 있는 지점으로 옮기겠다는 고객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지점 돈을 빼오는 모양이 되어서 거절했더니 그분은 다른 은행으로 옮겨버렸고, 나는 다른 지점 돈을 빼내게 했다는 누명을 썼다. 징계 위협에 처했을 때 요셉의 고난을 떠올리며 기도했다. “주님! 주님은 아시지요? 정직한 제 마음ைய요. 그들은 나를 모르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알아주면



윤학원 지휘자, 이명원 권사와 함께(필자 왼쪽)

됩니다” 라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며 제 멍에를 받아주시라고 주님께 엎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 시온찬양대에서 헨델의 <메시아> 합창을 크게 부르며 위로받았다. 징계로 지점 현장 근무를 박탈당하고 6개월 간 금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매월 목표액 달성 실적과 써름했던 스트레스를 이러한 방법으로 섬을 주시는구나’ 감사기도가 나왔다. 삼청공원을 산책하며 나무를 보고 햇별을 찍고 있다니. 들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신 멋진 주님을 발견했다고 할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마서 8:1) 말씀을 묵상하게 하였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려다본다. 손에 못으로 꿰뚫어 당하셨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셨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변명 한마디 안하시고 그 누명을 그대로 받으셨다. 내가 받은 고난의 길을 대입해 보았다. 부끄럽기 그 지없고, 엄살이었다고 규정 지어주신다.

주님 십자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고통에 참여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 후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행동으로 옮겨 실천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라 함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 깨달았다.

이집트에서 나와 40년을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1년째를 가나안 삶 원년 1년으로 시작하게 하셨듯, 시온찬양대 41년째를 가나안 원년으로 카운트하며 두렵고 떨렸던 초심을 다시 가져본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데...” 조형민 지휘자의 지휘봉 끝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는 지혜’(이율구 작사, 작곡) 퇴장송을 부르며 은혜를 체험한다.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양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또 발견한다. 많은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 견디며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이 복받친다. 시온찬양대! 엄마의 품이며 요람임에 더함 없는 감사를 드린다. **만남**

뒤늦게 깨달은 은혜에 감사

누구나 은혜의 경험이 있으리라 본다.
내게는 특히 기억되는 두가지 은혜가 있다.

하나는 20대 시절 믿음생활이 미약했던 내가 교통사고로 한달 동안 입원했던 일이다. 사고 순간 호흡이 정지될 때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기도문’이 마음속으로 흘러나오며 기적적으로 호흡이 되어 살아났던 경험이 있다. 또 하나는 삶의 무거움에 눌렸던 50대 때다.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로 무거웠던 일들이 체증이 내려가듯 해결된 경험이 있었다. 당시의 느낌은 말로 표현은 못한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날들을 기억하며 은혜의 확신으로 마음을 다진다.

뒤늦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지속해서 주관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한다. 원하고 원치 않아도 그분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김낙일 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목원대 만화·애니메이션과 교수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성도들과 교제할 때 평안한 마음이 들며 나의 안색과 표정이 밝아짐을 느낀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 기도하다가 충족되면 쉽게 잊어버리는 나를 돌아보

면 회색의 신앙인으로서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주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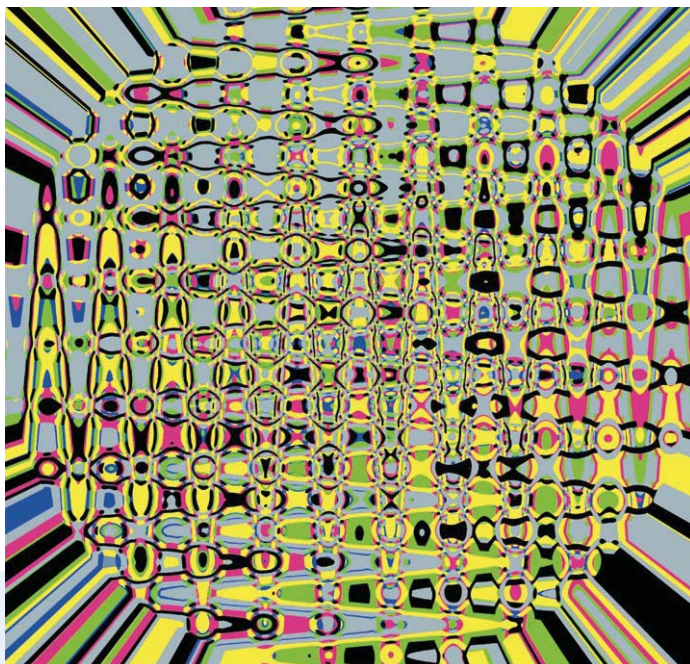
최근 <말씀대로 365>,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매일매일 말씀과 찬송 시간을 갖는다. 구역장님의 돌봄과 지인들과의 기도 모임, SNS를 통한 성경말씀 교류로 그분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어느 순간 회개와 기도 그리고 묵상 시간을 통해 체험하는 내면의 울림을 작품의 주제로 탐구하게 되었다.

그분과 만나는 시간에 눈을 감고 묵상한다. 묵상 중에 묘한 형상과 색채가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중 깊은 내면의 울림이 전개되고, 묵상을 통한 경험이 우연히 디지털로 효과이미지가 전개된다.

봄의 생명체가 움터 나오는 활력 넘치는 이미지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내면의 울림으로 표출된다. 생명력이 움트는 활력적인 이미지와 답답하고 암흑적인 이미지, 그리고 새벽의 청량한 공기의 울림 등 다양한 내면의 울림 속으로 여행한다.

나는 지금도 회색의 믿음 생활을 한다. 60여 년 삶을 통해 나 자신이 미울 정도로 미온적인 끈을 붙잡고 생활한다. 종교와 생활 그리고 예술작업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항상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듬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다. 그분은 내가 온전한 자녀로 오길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 이미지 작업만 하던 나로서 글쓰기는 무척 괴롭고 힘들지만, 이 글을 쓰면서 나를 돌아보며 한 발자국 그분께 다가서는 느낌이다. **만남**



내면의 울림 (Inner Echo) 2020013 / 59.4cm×59.4cm / Digital painting

내면의 울림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긴 호흡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보세요

우리 마음의 울림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또한 형상을 상상해 보았나요?
그리고 색깔도 칠해 보셨나요?

어떤 환경, 상황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다.
상상으로도 무한한 경험을 느낀다.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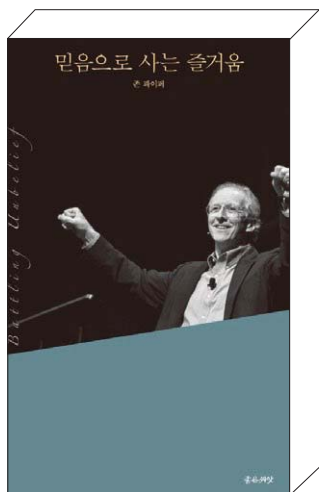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때
잠시 눈을 감고
빛과 형상과 색채를 느껴 보셨나요?

슬프고 답답한 감정을 느낄 때
눈을 감고
빛의 감도와 형상과 색감을 느껴 보셨나요?

간절하고 절실할 때
잠시
빛의 감도와 형상, 색감을 느껴 보셨나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리에 내면의 울림을 느끼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존 파이퍼 지음 / 좋은씨앗 / 2019년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기쁨의 신학자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양한 저서를 통해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글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지만 원래 제목은 『불신에 맞서 싸운다(Battling Unbelief)』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생각하는 불신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불신과 싸워 나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을 산다는 것은 전쟁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고 장차 더 분명하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장래의 은혜를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얻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싸우게 되는 여덟 가지 대상, 여덟 가지 불신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교만·수치심·조급함·탐심·비통함·낙심·정욕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이기기 쉬운 어려움이 없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한글 제목인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불신과 고통과 싸우는 삶은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여러 불신과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험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하고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때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남**



김진우 목사
안양·수원교구
북한선교부

존재의 신비 9

(The mystery of existence #9)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모든 일상이 소중하다. 사랑과 평안을 늘 채워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따뜻함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하며 작업에 임한다.

‘존재의 신비’ 시리즈는 자연에서 얻은 소중한 기억을 모호함으로 재해석하여, 형태 없이 불규칙한 무질서와 황폐의 혼돈 속에서 영혼과 마음의 내적 작용에서 발화하여 폭발하는 내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하여 담았다.

형태의 모호함, 단색과 유사 색, 색의 중첩과 혼합, 우연과 필연, 생성과 소멸, 어둠과 상실의 반복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내면의 힘으로 녹여내며 비우고 내려놓는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값없이 받은 삶에 감사함으로, 누군가의 지친 일상에 생명의 작은 빛이 되길 소망한다. **만남**



윤미숙 권사 _ 서초교구

교회소식

갈릴리찬양대 창립40주년 감사 음악예배 드려

‘갈릴리찬양대(대장 임우섭 장로) 창립40주년 감사 음악예배’가 3월 20일 주일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졌다. 음악예배는 백성우 목사의 인도로, 정광윤 안수집사(부대장)의 기도 후, 갈릴리찬양대 지도목사 권혁일 목사가 설교했다.

음악회는 조성환 안수집사의 지휘, 오르가니스트 김우경 집사의 반주로 칸타타 ‘교회의 참된 터는 주 예수!’ (김신웅 작곡) 3곡의 연주하며 감사 찬양이 본당에 울려 퍼졌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등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고백을 담은 찬양곡들을 통해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들과 듣는 성도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선사하며 창립40주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이성환 안수집사

교회소식

news letter

제직부흥회, 진정한 내려놓음에서 섬김이 이루어진다



2022년 제직부흥회가 2월 20일(주일) 저녁예배 시 본당에서 있었다.

한재엽 원로목사(장유대성교회)의 “우리가 놓친 것(신명

기 34:1~12)”이란 제목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일꾼들을 들어 세우실까”라는 화두를 통해 말씀을 전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때 자신을 접을 줄 아는 자를 들어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욕심이다.”라고 강조하시며 영락교회의 제직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섬기기를 부탁했다.

모이기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많은 제직들이 참석하여 ‘진정한 내려놓음일 때 섬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에 충만히 은혜 받은 귀한 자리였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뉴코리아국제학교 22기 입학 및 개강식 열어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의 일환으로 설립·운영하는 뉴코리아국제학교가 3월 8일 오후 7시 봉사관 405호에서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2기 입학 및 개강식을 가졌다.

온라인과 병행한 1부 개강예배는 구요셉 전도사의 인도로 소상균 집사의 기도, 김진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2부 입학 및 개강식은 김국진 안수집사(교감)의 사회로 신입생 소개가 있는 후, 교장을 맡은 이동훈 안수집사가 개강식사를 했고 이어 교사팀과 운영팀 소개를 했다.

개강식 후 첫 강의를 시작되었다. 17명의 학생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영어,논술 등의 과목을 주3회(화·목·금) 각 분야 11명의 교사와 공부하게 된다.

특별히 올해부터 학기별 장학제도가 신설되어 학생들에게 면학의 힘을 보태주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유인들을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뉴코리아국제학교(New Korea Global Institute)를 열어 복음통일을 향한 교육 사역에 힘쓰고 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권사회, 신임권사 63명 세우며 헌신예배



2022년 권사회 헌신예배가 지난 2월 27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드려졌다. 임직받을 신임권사와 권사회 증경회장, 임원, 실행위원들이 본당 중앙에 자리한 가운데 김영하 권사(권사회 회장)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됐다. 안자이 권사(권사회 부회장)의 기도, 성경봉독(에베소서 4:1~6), 갈릴리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백성우 목사가 “부르심에 합당하

게”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임권사 임직식은 김운성 위임목사가 기립한 신임권사 63명에게 권사로 택함받음을 선포한 뒤 신임권사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교를 위해 힘쓰며 맡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서약함으로 이뤄졌다. 김영하 회장은 신임권사 환영사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진하여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임권사 대표 윤은

진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 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예배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라고 답사했다. 권사회찬양대의 특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참석한 권사들은 교회에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3·1절 기념 예배 ‘나라사랑 믿음의 유산’ 확인

103주년 3·1절 기념예배가 3월 2일 수요일 1부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드려졌다. 황숙희 권사(제1여전도회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박옥경 권사(제2여전도회장)의 기도, 석소연 집사(제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조두형 목사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사순절 시작 첫날이기도 한 이날 기념예배에서 조두형 목사는 열왕기상 19장 19~21절 본문을 중심으로 <엘리아의 겹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엘리아의 겹옷’의 역사를 엘리아가 이어가듯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치며 생명을 걸었던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으며, 이를 이어가자고 권면했다. 정해욱 권사(제3여전도회장)의 독



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김용수 은퇴장로(B)의 만세 삼창이 이어졌다.

취재 인미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4월 목회력

1일(금)	연합권찰공부
2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3일(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영락청년연합 예배, 찬양예배 성찬
10일(주일)	종려주일, 제직회, 새가족환영회
11일(월)~16일(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5일(금)	성금요일, 한경직 목사 성묘예식
16일(토)	교육부-전략세미나(형성의 교육) 1차
17일(주일)	부활주일, 부활주일 음악예배, 영락청소년연합예배
17일(주일)~23일(토)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22일(금)	심방준비회
23일(토)	교육부-전략세미나(형성의 교육) 2차
24일(주일)	영락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 다음세대 기도회, 사회봉사주일
30일(토)	교육부-전략세미나(형성의 교육) 3차

※ 4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성경인물퀴즈

나는 누구일까요?



제 본명은 호세아 논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지요.
나는 다른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어요.
그 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 호 수 아

제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예요.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둘째 부인으로부터 조롱과 시련을 당했어요.
나는 자식을 달라 기도하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 취한 길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죠. 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 나

2022년 4월호 통권 577호

발행인 2022. 4.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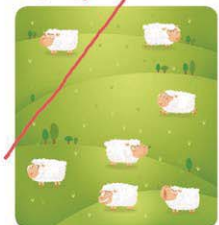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야곱이 7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풀어놓았네요.
직선을 3개만 사용하여 한
마리씩 사이좋게
나누어지도록 울타리를
그려주세요.

예시)



영락화랑

존재의 신비 9

(The mystery of existence #9)



윤미숙, Mixed media on canvas, 91×91cm, 2021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16:8)